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2호 【루게 제25070호】 주제104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속에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음악포성, 노래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장소는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리는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10월의 명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관람자들의 혁명적열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에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어머니생일》, 경음악과 노래편곡 《조선로동당만세》, 남성독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남성합창 《조선의 모습》, 기악과 노래 《사랑하노라》, 판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녀성중창 《보란듯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이끌어 장장 70년의 성스러운 역사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주체의 붉은 당기폭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존엄높이 새겨주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주는 향도의 우리 당을 우러러 이 세상 제일 큰 영광과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싶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마음이 그대로 공연무대에 펼쳐질 때마다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빛내여주시고 백두의 녂과 기상으로 우리 조국을 승리로 이끄시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대강국의 위용을 높이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최룡해동지, 김양건동지와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 대공연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당사상전선의 제일나팔수들인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당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지향하는 시대의 송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2 면 으 로 계 속

